

매우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에서의 아시아/IMF 관계 강화

데이비드 린튼(David Lipton) 국제통화기금 수석부총재의 아시아 금융 포럼 강연
홍콩, 2012년 1월 16일

머리말

안녕하세요. 저는 이 포럼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를 이 중요한 이벤트에 초청해주신 홍콩 정부와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셔서 이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에, 제가 2012년의 첫 방문지로 아시아를 선택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아시아의 경제는 견실하고 전망도 매우 좋습니다.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90년대에 아시아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고통스러운 상황이 없지 않았으나 과감하게 개혁을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의 다른 지역, 특히 유럽이 문제를 일으켜 아시아의 번영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는 유럽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시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까지도 수행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시아는 중장기적으로 대처해야 할 자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아와 IMF는 과거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이 지역은 물론, 전세계가 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추진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3가지 주요 주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저는 유럽 경제의 현황에서부터 시작하여, 이것이 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IMF-아시아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릴으로써 이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글로벌 경제 전망과 정책

IMF는 불과 몇 달 전에 세계 경제가 “새로운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국면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위험합니다.

우선, 경제 활동의 속도가 전세계적으로 느려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미국의 최근 경제 지표는 상승했고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나, 글로벌 경제 활동은 2011년 마지막 분기에 대체적으로 감소했고, 단기 경제 전망은 9월의 예측에 비해 현저하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부정적인 것은 그 당시에 저희가 지적했던 하방위험이 2011년 말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이유는 유로 지역의 위기가 확산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재정 지속 가능성과 은행 부문의 손실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많은 유로 지역 국가의 신용 스프레드가 전례가 없는 높은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유로 지역에서는 은행 자금이 거의 바닥나서 은행들이 자산을 매각하고 대출을 줄여 부채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레버리징의 위험 때문에 이 지역의 성장률이 저희가 다음 주에 발표할 보수적인 예측보다도 낮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유로 지역의 위기는 다른 지역들로 파급되고 있고, 그러한 지역들의 취약점과 상호작용하여 전세계의 다른 많은 국가들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의 경제 전망은 어둡고, 유럽과 전세계의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비관적으로 보고 문제를 방치하기보다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노력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한 가지 좋은 측면은 저희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유럽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방위험을 방지하고, 미래의 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좋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까요?

문제 해결의 필수 요소는 4가지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가”에는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은행과 국가의 *유동성 증가*(유럽을 지원하기 위한 더 많은 자원 포함), 단기 성장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않으면서 신중하고 신뢰할만한 속도로 *재정 건전화 증가*, 정책 조정을 지속하고 금융을 연쇄적으로 악화시키는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성장 증가*(추가로 정책을 조정하고 더 많은 자본을 은행에 투입하여 부채 상환의 규모를 축소), 통화동맹의 생존 능력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합 증가*(*재정 및 금융 통합 모두*)가 포함됩니다.

유로존의 지도자들은 최근 수개월 간 몇 가지 조치를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재정적자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미래의 재정규율에 대한 메커니즘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국가를 초월하는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자본을 재구성하기 위한 조화된 접근방법을 채택했고, 현재 체계적 위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중앙은행들은 최근에 은행에 장기적인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대규모의 자금을 방출했습니다. 2012년에 유럽이 수행해야 할 과제는 협력을 통해서 모든 분야에 대해 개혁을 추진 및 실행하고, 이러한 모든 조치들을 강화 및 실행하기 위한 자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중간 궤도 수정을 해야 합니다. IMF는 유럽과 협력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성장을 재추진하고, 공용 통화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높은 위험이 따릅니다. 유럽이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신뢰 붕괴, 성장 정체, 고용 감소와 같은 하방위험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상호 연결된 글로벌 경제에서는 어떤 국가나 지역도 이러한 대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시아의 과제

다음의 상황들은 특히 아시아에 해당됩니다.

아시아는 2008년의 금융 위기를 벗어나면서 세계적으로 위상이 강화되었고, 향후 20년 간 세계 최대의 경제 지역이 되기 위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추세를 감안할 때, 2030년이 되면 아시아 경제는 G-7보다 규모가 커지고 G-20 경제 규모의 절반에 해당될 만큼 성장할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중심은 이제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는 역내 무역이 급증하고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경제 불균형을 다소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국과 유로 지역의 최종 수요에 지나치게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취약점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는 금융 채널의 전염(contagion)에 취약합니다. 유럽 은행들은 몇몇 아시아 경제국들에 대해 상당한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이 은행들이 디레버리징을 하면 해당 경제국들의 신용 공급과 자산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 은행들은 아시아에 대한 매우 중요한 무역 금융 제공자이기 때문에 이 분야가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대체 제공자를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하방위험을 고려할 때, 아시아의 정책입안자들은 자국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거시정책적 측면에서는, 재정 정상화를 계속 추진하여 충격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상실한 재정 여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이 중앙은행의 목표보다 낮은 모든 국가들은 통화 긴축을 지극히 잠시 중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책입안자들은 또한 은행이 유동성과 안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채무 만기일을 연장하고, 여신한도를 확보하고, 쌍무적으로 또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통화 스왑 협정을 추가로 확대함으로써 외부 취약점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몇몇 국가들은 예방 및 유동성 지원 제도(Precautionary and Liquidity Line)를 포함하는 IMF의 지원을 받기를 원할 수도 있으며, 이 제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각한 하방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아시아의 정책입안자들은 2008/2009년의 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에는 재정 건전화를 중시하고(이렇게 할 충분한 여력이 있는 국가들의 경우)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금리를 인하하고, 표적 신용

완화 조치(예를 들면, 상업어음, 회사채, 중소기업 신용)의 도입을 포함하는 일정한 범위의 비전통적인 조치를 채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 부채에 대한 보증 제도의 도입과 무역금융에 대한 지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경제국들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풍부한 외환보유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 역내 외환보유고 공유협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시아의 정책입안자들은 또한 지속 가능하고 견실한 중기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속적인 구조 개혁, 그리고 외부 충격에 대한 경제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개혁이라는 문제점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은 이 지역의 소득 불균형이 확대되는 것을 완화하고, 투자와 수출에서 벗어나서 민간 소비를 촉진하는 지속적인 성장 재조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IMF의 새로운 아시아 파트너십

아시아가 전진을 계속함에 따라, IMF는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상호 협력의 잠재력이 1997-98년의 아시아 금융 위기에 대한 나쁜 기억 때문에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의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떤 교훈을 이끌어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2012년의 중요한 시점에서 볼 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기간과 그 후에 실시한 개혁이 아시아에 2008년의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 탄력을 제공했고 지금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의 부실 대출(NPL), 기업 부채, 통화 불일치에 대해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아시아가 글로벌 금융 위기를 유리한 위치에서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경제국들은 보다 능률적인 거시경제적 정책 운영 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이 지역을 강타했을 때 강력한 역순환적 대응을 할 여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아시아 경제국들이 금융 위기의 파급효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 무역과 긴밀한 금융 및 경제 협력에 계속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시아가 지난 3년 간 글로벌 경제 회복을 주도한 것은 우연도 아니고, 놀랄만한 일도 아닙니다.

또한 IMF는 아시아의 경험으로부터 저희가 현재 유럽을 포함하는 전세계의 프로그램에 적용하고 있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특히, 이 기금은 심각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프로그램들에 수반되는 상황들을 고려하여 가까이 있는 문제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제안 및 착수한 정책들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 그리고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훨씬 더 많이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효과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래를 전망해 볼 때, 저희의 업무가 이 지역의 이익을 지원할 수 있는 2 가지 분야는 위기 방지를 위한 경제 및 금융 감시와 글로벌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경제 및 금융 감시.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개별 국가 및 세계 전체에 대한 경제 정책과 상황, 그리고 국가 사이의 파급효과를 조사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금융 시스템에 대한 거시 건전성 감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IMF의 분석은 이러한 측면에서 ASEAN+3 거시경제 조사 기구(AMRO)와 건설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포함하는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다른 지역에서 채택한 정책들이 아시아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더욱 주시하고 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이곳 아시아에서 결정한 정책이 갖는 세계적인 의미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미국, 영국, 유로 지역에 대한 저희의 파급효과 보고서는 이러한 종류의 통합된 분석을 최초로 제공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 기금은 관련 당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아시아 금융 부문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IMF는 지난 2년 간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대해 최초로 금융 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FSAP 업데이트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필리핀에 대해 완료되었고, 인도, 일본, 말레이시아, 호주에서 평가가 진행 중이거나 곧 착수될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 안전망: 금융 위기가 명확하게 증명했듯이, 공황기에는 많은 아시아 경제국처럼 거시경제와 금융 상황이 건전한 국가들에서도 자본의 흐름이 매우 신속하게 역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글로벌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세계 경제를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고, 아시아가 새로운 외부 충격에 대한 위험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고 아시아의 금융 위기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서, IMF는 2009년 이후에 대출 도구에 대한 개혁에 착수했고, “위기 방관자(crisis by-standers)” 국가들의 유동성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장 최근의 예방 및 유동성 지원 제도(PLL)를 포함하는 맞춤형 위기 방지 도구를 도입했습니다. “위기 방관자”란 경제의 기초 여건은 건전하지만 주로 세계 다른 지역의 위기 때문에 실제적 또는 잠재적으로 국제수지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는 회원국들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는 앞으로 몇주 동안 이 기금의 대출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된 사례를 작성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작업의 목표가 유럽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투입할 재원을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선협의 방관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세계화된 세상에서는 방화벽에 대한 필요도 세계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또한 IMF의 재원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와 같은 역내 외환보유고 공유협정과 더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아시아와 IMF 사이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면 아시아가 이 기금에서 더 강력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시아가 신흥 경제 지역으로 부상한 것을 감안할 때, 이 기구 내에서의 아시아의 발언권이 강화되고 영향력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추세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IMF는 2010년에 쿼터 및 발언권 개혁에 대한 중요한 패키지를 통과시켰고, 이를 통해서 이 기금에 대한 신흥 아시아의 대표권이 27 퍼센트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의 덕택으로, 3 개 아시아 경제국들(중국, 일본, 인도)이 이 기금의 10 대 주주에 포함되었고, 일본과 중국은 각각 2 위 및 3 위의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IMF의 주요 스태프들이 이 지역에서 선정됨에 따라 아시아와 IMF의 연계가 강화되었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시노하라 나오유키와 중국의 주민이 이 기금의 부총재로 임명됨에 따라, 현재 IMF 경영팀의 40 퍼센트가 아시아 국적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부수상 겸 재무장관인 타르만 산무가라트남이 2011년에 국제통화금융위원회의 의장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중요한 사항은 2012년 IMF/세계은행 연차총회가 도쿄에서 개최되며, 이 총회에서는 세계 경제 안정화의 보루인 아시아의 중요한 역할, 그리고 이 지역과 IMF 사이의 건설적인 파트너십 강화에 대해 토의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10월에 이 총회에 참석하실 것을 권합니다.

맺음말

결론적으로, 세계 경제가 유로 지역의 고조되는 긴장과 다른 지역의 취약성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어 매우 불확실한 시기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단호한 조치와 세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아시아를 포함하는 전세계의 국가들에 파급될 위기가 새로운 국면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IMF는 이 지역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 지역이 장기적으로 직면할 문제점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아시아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유럽을 주시하고 있는 이 때, 이 기금은 아시아를 경제 회복을 주도하는 주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아시아가 IMF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 두 가지 목표가 달성되면 아시아와 전세계에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